

첫 통합특별시장 본경선 앞 민주당 후보 세 확산 경쟁

강기정 후원회장에 정세균·노동일 민형배 후원회장에 박지원 등 참여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본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의 세 확산 경쟁이 치열하다. 25일 지역정거장에 따르면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후원회장으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노동일 배수비우스&D 대표이사가 나섰다. 정 전 총리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한 경험으로 행정 통합 과정에서 갈등 해소와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조언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후보 측은 설명했다. 노 대표이사의 경우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역임한 지역 경제 대표 인사로

산업과 지역사회 연결에 힘을 보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후원회장에 박지원 국회의원 등 정치·행정·학계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의 대거 참여를 알리며 세 확장을 과시했다. 민 후보 측 캠프는 이광재 전 강령도지사, 성경룡 노무현 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순은 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정치·행정·학계 인사들이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송경용 신부(한국노동재단 이사장)도 정책자문단에 참여한다.

김윤수 전 전남대학교 총장, 장만재 전 전남도교육감 등 전남·광주 학계와 교육계 주요 인사들도 정책자문단에 합류했다.

김영록 후보는 앞서 이병훈 전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박광태 전 광주시장의 지지도 확보하며 세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정훈 후보는 최근 문인 북구청장과 전라적 연대에 이어 강기정 후보와의 단일화를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선 진출을 위한 전략적 연대와 단일화가 본격화되면 경선단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세 걸잡이 승부를 가르는 국면으로 전환돼 앞으로 정책 경쟁보다 이합집산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25일 광주 서구 광천동 KBC광주방송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본경선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신정훈, 주철현, 강기정, 민형배, 김영록 후보. 최원기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영록 “공론화위·균형발전특위 상설화”

갈등 조정·의사결정 구조 확립... 시민 참여 확대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주청사 입지와 20조원 재정 활용 등 통합특별시 핵심 현안을 풀기 위한 상설 협의체 구성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25일 “시민공론화위원회와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주요 갈등을 조정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주청사 문제와 광주 정체성, 재정 배분 등을 시민 참여 방식으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영태 전 광주공론화위원장(전남대 명예교수)과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명예교수)이 각각 공

론화·균형발전 분야 자문위원장으로 합류한다. 두 인사는 공론화와 균형발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인물로, 김 예비후보 캠프의 정책 설계에 참여한다. 김 예비후보는 그동안 ‘시민공동정부’ 구상을 제시해왔으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두 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특위는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된 20조원 재정의 배분과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27개 시군구 간 균형발전, 주민 자치 강화, 권한·재정 분배 구조 설계 등을 다루게 된다. 최영태 전 위원장은 “통합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속도감 속에 놓친 부분도 있다”며 “통합을 제안하고 추진한 주체로서 우려를 줄이는 과정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원 전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과 권한 배분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기 기자 gnnews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5일 전남 나주시 영산포물시장에서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현기 기자 gnnews1@

조국, 나주·함평 찾아 호남 민심 공략

김덕수 나주시장 예비후보 동행... 기반 다지기 본격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나주와 함평을 잇따라 찾으며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섰다. 조 대표는 25일 오전 나주 빛가람전망대에서 열린 ‘정출어람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조국혁신당 김덕수 나주시장 예비후보와 나주시의원 출마자들, 신장식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호남을 대표해 왔지만, 혁신당의 푸른색은 어떤 쪽보다 더 짙고 분명한 것”이라며 “창당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과 내란 극복 과정에서 누구보다 분명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더 키워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조 대표는 영산포 물시장에 찾아 상인과 시민들을 만났다. 시장 골목을 따라 이동하며 허리를 낮춰 인사를 건네고, 악수와 대화를 이어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으로 이동해 나주농민회 영농발대식에 참석했다. 그는 농민들과 만나 농업 현안을 청취한 뒤, 함평 버스터미널과 상가를 방문하며 서남권 일정을 이어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행보를 민생 현장 방문을 앞세운 선거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현기 기자 gnnews1@

신정훈 “삼성·SK보다 산림·공공일자리 쟁겨야”

전남·광주 산림조합장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신정훈 후보(사진)가 25일 대기업 유치 경쟁에만 매달리는 접근에서 벗어나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일자리 지원, 생활권 불평등 해소 등 통합특별시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신 후보는 이날 전남·광주 산림조합장

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정책과 조합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뒤 산림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남·광주의 미래는 보여주지 못했던 대기업 유치 경쟁이 아니라 산림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일자리 존중, 최근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대기업 유치

생활권 불평등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후보는 산림을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니라 지역사회 유지와 공공 기능을 함께 떠받치는 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는 “산림은 단순한 자연을 넘어 농업과도 다른 결을 가진 공공적 자산”이라며 “산림의 공공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대기업 유치



공약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후보들이 삼성, SK 같은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며 “대기업 유치가 공감하지만 지금의 전남·광주에 꼭 맞는 처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지역에서 이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직종과 공공영역에 대한 지원이 먼저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현기 기자 gnnews1@gwangnam.co.kr

6·3 지방선거 브리핑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 1호공약

‘아이 미래 기본 펀드’ 적립 사업

정인화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광양시 인구기반 강화를 위한 ‘광양시 아이 미래 기본 펀드’ 적립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25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은 단순한 현금 보증을 넘어 광양시와 기업이 미래에 함께 투자하는 ‘성장형 모델’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광양 아이 미래 펀드’는 오는 9월 1일 이후 광양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매년 50만 원씩 5년 동안 펀드 계좌에 적립해주는 정책으로 부모가 희망할 경우 추가 납입으로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적립이 가능해 자산 형성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10년 동안 최대 약 1000만 원 규모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고 투자수익과 복리 효과가 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예비후보는 “과거의 광양은 일자리가 있어 사람이 오는 도시였지만 앞으로의 광양은 사람이 있어야 산업이 유지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단순히 아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광양시와 가정의 아이의 미래에 공동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아이 미래 기본 펀드는 광양의 아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종잣돈이 될 것”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무르는 도시 광양의 위상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일하는 사람 잘사는 광양 구축”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사진)는 25일 시청 열린홍보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광양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박 예비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도시를 위해 농민이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생산·가공·유통·수출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양 농수산물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자부담을 절반 이하로 인하하고 70세 이상 고령농에 대해 전액 지원하는 농민 재해보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 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을 도입, 농가소득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복리비, 포상금 등 일부를 지역화폐로 전환하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토록 건물주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상생형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갖고도 디지털 마케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동네 핫폴’을 만들고 동네 상가와 청년 크리에이터와 매칭해, 청년에게 실현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gjin@gwangnam.co.kr



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

에너지 연금 실행 로드맵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나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자신의 제1호 공약인 에너지연금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개하며, 나주를 대한민국 에너지 주권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태 예비후보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단순한 보증을 넘어 시민이 에너지 자본가로 거듭나는 시민주의 행정의 실효를 증명했다. 이 후보는 정부 예산 삭감에 흔들리지 않는 재정 주권 확립을 위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중 50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는 과격적인 재무 설계를 제시했다. 이재태 정부가 약속한 조광역 재원 중 나주 몫을 SOC 개발 등 에너지 연금에 투자할 구조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26년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부지 효율화 전략을 발표했다. 탠덤 및 N형 고효율 모듈을 도입해 1GW 소오 부지를 300만평 이하로 추산했다. 이는 나주시 전체 면적의 1.63% 수준이다.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옥상, 산단 공장 지붕, 저수지 수면 등을 우선 활용하는 입체적 배치를 통해 노지형 신규 건설 부지면적을 250만평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또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임대료를 보장하고, 여기서 파생되는 IT 관리 업무에는 나주 청년들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원기 기자 pose007@gwangnam.co.kr



강성희 목포시장 예비후보

교육·산업 등 구조적 해법 제시

더불어민주당 강성희 목포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지역 인구 감소 원인을 일자리 부족으로 진단하고,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구조적 해법을 제시했다. 강성희 예비후보는 25일 “최근 3년간 청년 인구만 6200명이 감소했고, 청년 유출로 출생과 학생 수 감소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목포시 고용률은 60.2%로 광주·전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무안·영암 등 인근 지역이나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목포의 학령기 인구는 2년 만에 약 800명(9.7%)이 감소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도 5년 전 2371명에서 올해 1570명으로 801명(34%)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시와 전남도교육청이 함께 장·중·단기 교육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교육 확대를 통해 학교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해양·문화·영상 콘텐츠 등 목포의 강점을 살린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이 다시 모이는 특성과 모델과 연계한 교육 혁신도시를 지향하겠다는 구상이다. 목포=이현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